구역별 대사

부엌  
부엌 뒷문  
(철컥철컥 소리)  
[열리지 않는다.]  
  
시체들  
[내장이 없는 시체들이 매달려 있다.]  
[선옥 :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..]  
[시체의 손에 뭔가 쥐여져 있다.]  
[구겨진 쪽지를 얻었다.]

조리대  
[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.]

그릇장  
(그릇장 열쇠 획득 전)  
[낡은 그릇장이다.]  
[깨끗하게 닦인 고급 그릇들이 있다.]  
(그릇장 열쇠 획득 후)  
[그릇장 열쇠를 사용했다.]  
[‘금간 접시’를 얻었다.]

식당  
의자  
[선옥 : ‘문을 막아야 해, 뭔가 막을 만한 것이..막을 만한 것이..!’]  
(타이머 7초)  
(선옥이 의자를 밀어 입구를 막아야 함)  
(타이머가 끝난 후 문에서 쾅쾅 소리, 철컥철컥 소리가 나다가 곧 조용해진다.)  
(그릇장 열쇠 획득 후)  
(선옥, 의자를 다시 밀어 문을 연다)  
식탁  
[서양식 고급 식탁이지만 낡아서 삐걱거린다.]

서재  
책상  
[그릇장 열쇠를 얻었다.]  
(온실 열쇠 획득 후)  
(몹의 발걸음 소리)  
[선옥 – ‘숨어야 해!’]  
(타이머 5초, 책상으로 화살표 보임)  
(두근거리는 소리)  
(타이머 완료 후  
[몹 - …..]  
(몹이 문으로 들어와 소파 앞에 서있다 나감)  
(선옥, 창백한 얼굴로 책상에서 나옴)  
[선옥 – ‘시방 죽다 살아났네.’]

책장  
(책장 1)  
[낡은 책장에 거미줄이 쳐져 있다.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던 듯 하다.]  
(책장2)  
[책들 사이에 삐죽 튀어나온 종이가 있다.]  
[일기 조각을 얻었다.]  
(일기 내용 - 무도장 왼편을 온실로 지었다. 큼지막한 꽃나무와 화초들을 옮겨 심으니 어찌나 고운지. ●●도 이따금 찾아와 ‘어머니, 어머니만큼 꽃들도 곱습니다.’ 하며 재롱스런..)  
(●●도 ~ 마지막까지 검은색 펜으로 마구 그어져 있어 알아볼 수 없다. 특히 이름이 진하게 덮어씌워져 있다.)

소파  
(금간 접시 획득 후, 서재 소파 확인 후)  
[뭔가 튀어나와 있다.]  
[날카로운 물건으로 찢어서 꺼낼 수 있을 것 같다.]  
(금간 접시 사용 후, 접시 조각 획득 후)  
(접시 조각 사용)  
[온실 열쇠를 얻었다.]

온실  
작은탁자  
[화병을 얻었다.]

큰 탁자  
[낡은 가위가 있다.]  
[화훼 가위를 얻었다.]  
[화병 안에 무언가 있다. 꺼낼까?]  
(꺼낸다 를 선택할 경우)  
[거실 탁자 열쇠를 얻었다.]  
(꺼내지 않는다 를 선택할 경우)  
[선옥 : 뭔가 꺼림칙한디…]  
(거실 탁자 열쇠 획득 후)  
(발걸음 소리, 심장소리)  
(5초 타이머 후 몹 출현)  
[몹 : ………]  
(몹, 선옥이 숨어있는 곳 근처까지 왔다가 나감)  
(가까이 올수록 심장소리 빠르게)  
[선옥 : 후우….흡….후……]

시체들  
[꽃으로 장식된 시체들이다.]  
[눈, 입이 꽃으로 채워져 있다.]  
[선옥 : ‘역겨워서 토나오겄네’]